

취재수첩 에 세 이

2 0 0 4

창간 40주년 기념
〈신문과방송〉
에
업힌 이야기들

태평양 건너 갈등 풀어주었던 기억, 소수자 표현의 자유에도 관심을

한중호 ·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

미 국 연수 시절 매우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는 언론학과와 현업 언론인간의 깊고 진지한 연계였다. 저널리즘 스쿨의 교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문, 방송사 혹은 광고, PR 회사에서 직접 수년간 경력을 쌓고 온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학계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학술대회를 하거나 취업과 관련된 모임을 갖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물론 대학의 커리큘럼도 철저하게 유능한 저널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짜여졌다.

저널리즘 학자와 실무자를 연결해주는 채널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전문 저널이었다. 전문 저널은 내용이나 형식에서 매우 학술적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강한 것(academic journal), 저널리즘 업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함께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수준의 것(trade journal), 그리고 그보다 더 대중적인 것(popular journal) 등 통상 세 가지로 나뉘어지곤 했다.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또는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등이 첫 번째에 속한다면 Editor & Publisher 혹은 Broadcasting 등이 두 번째에 해당하고 Columbia Journalism Review 등이 세 번째 범주로 분류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다. 물론 그 밖에도 각종 언론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만들어낸 온·오프라인의 대중적 저널들도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다양한 저널들은 학자들의 논문에 인용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도와도 자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있는 매체로서 모두에게 지적, 실무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연수 기간 중 발생한 9.11 테러에 대한 보도를 놓고 지역신문 편집국장 및 간부들이 학교로 찾아와 신문학 전공 교수들과 함께 미국 전역의 2001년 9월 12일자 신문 1면을 교실에 걸어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던 모습, 그리고 그 토론 결과를 전문 저널에 실고 돌려 읽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새삼 가치를 느끼게 된 것이 〈신문과방송〉이다. 9.11 테러 사건이 나자마자 주저 없이 연수 기간중의 연구 주제를 '9.11 테러와 언론보도'로 바꾼 내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런 세계적인 저널리즘 이슈에 대해 전문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실무적 분석을 함께 해내는 전문 저널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내 눈을 확실하게 잡아 끈 것이 〈신문과방송〉이었다. 〈신

문과방송)은 우선 2001년 10월 호에서 '집중점검: 미국 테러 보도'라는 특집 기획으로 신문과 방송 보도에 대한 비평을 종합 평가한 데 이어 11월 호에서는 아예 '표제특집: 전쟁보도'를 통해 특파원 보고, 특별 인터뷰, 언론의 전쟁취재 준비, 테러 전쟁 보도의 문제, 외신 의존 보도의 문제, 중군기자 보도 통제의 역사, 걸프전 보도의 교훈, 급박한 시기의 동시통역 방송 체제, 테러 일주일 한국 신문 해부 등 무려 9건의 관련 기사를 소나기처럼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 남 일리노이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심재훈 선생의 날카로운 칼럼까지 곁들여 주어 태평양 건너에서 정보에 목말라 하던 나 같은 독자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 후에도 <신문과방송>은 '집중점검: 국제보도시스템' 특집 및 '미국의 테러전쟁 보도와 언론자유' (2001년 12월호), '테러리즘과 저널리즘' (2002년 1월호), '제국의 야만성 폭로한 노암 촘스키' (2002년 2월호) 등 9.11 테러와 관련된 기사 퍼레이드를 끈질기게 이어나갔고 이는 나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신문과방송>에 소개된 기사와 자료는 나에게 새로운 독서와 사색의 화두를 제공해 주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연수 기간 중 작성한 원고와 각종 자료는 최근 '빅브라더 아메리카-9.11 테러와 표현의 자유' (나남출판사)라는 제목으로 출판될 수 있었으니 나로서는 <신문과방송>에 큰 빚을 진 셈이 됐다.

빚을 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창간 40주년과 지령 400호라는 겹경사를 맞은 <신문과방송>에 대한 바람 한 가지를 말하라면 '마이너리티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제 기존의 제도권 신문과 방송만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디어가 담을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됐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표현의 자유'의 영역 밖의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 사회의 목소리들 - 자신의 신앙과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양심적 집총거부를 선언하거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회사 내 CCTV 설치에 저항한 사람 등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유무형의 억압을 '자유 언론(free speech)'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그럼으로써 <신문과방송>이 40년 간 지향해 온 한국 언론의 지평과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자는 것이다. 한국 언론이 과학기술 혁명에 힘입어 나날이 성장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를 더 깊고 넓게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

세 번째 만남 끝에 열애에 빠지다

고재열 · 시사저널 문화팀 기자

〈신문과방송〉, 나는 그녀를 세 번 만났다. 새내기 언론학도 시절 한 번,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예비언론인 시절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 한 번. 지난 연말부터는 정기구독을 하며 그녀와 '열애'에 빠져있다.

〈신문과방송〉과의 첫 만남은 새내기 언론학도로서 언론계를 향한 장도의 첫 발을 내딛던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공과목 과제를 위해 찾은 학교 도서관 자료실에서 나는 〈신문과방송〉과 첫 대면을 했다. 〈신문과방송〉에 담긴 언론인과 언론계 이야기는 다가갈 수 없는, 마치 오래 전 올림포스 신전의 이야기처럼 막연했다.

두 번째 만남은 언론사 입사준비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언론학도답게, 다르게, 제대로 준비하자는 심산으로 나는 다시 도서관을 찾아 〈신문과방송〉을 들추었다. 물론 여기에는 토익 책과 상식 책만으로 언론사 문을 두드리는 열치기들과 차별화하자는 셈법도 작용했는데, 〈신문과방송〉은 올바른 저널리즘에 대한 방향타 노트를 해주었다.

세 번째 만남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기자간담회 때문에 가끔씩 들르는 프레스센터에서 시간이 남으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출판한 단행본들을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지난 연말 어느 날, 편하게 자료를 받아보자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재단 출판팀에 들러 자료회원에 등록했다. 자료회원으로 등록하자 〈신문과방송〉이 〈미디어월드와이드〉와 함께 따라왔다. 단행본은 주로 언론 관련 논문을 제본한 것이었는데 '제목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서론이 길고 부연이 많은 것이 너무 호홉이 길어 나와 맞지 않았다. 기자 특유의 조금증에 젖은 나는 대부분 줄거리만 훑어보고 던져놓기 일쑤였다. 반면에 〈신문과방송〉은 애독하고 때론 열독하고 여유가 생기면 정독했다.

〈신문과방송〉의 논증적이며 논쟁적인 글이 마음에 들었다. 특히 기자들의 '시어머니'라 할 수 있는 언론학계 교수들의 글이 좋았다. 기자들에 대한 월간 지로는 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자통신〉이 있었지만(지금은 폐간되어 발행되지 않지만) 친목단체 기관지라 그런지 내용이 다소 싱거웠었다. 하지만 〈신문과방송〉은 현장 기자의 헛헛함을 채워주었다.

〈신문과방송〉에서 가장 주목해서 읽는 글은 언론계 선후배들의 이야기들이다. 자기 세계를 가진 기자들, 혹은 나름대로 뜻한 바를 이룬 기자들의 이야기를 부러움 반, 시샘 반으로 읽었다. 어찌 그리 부지런하고 생각이 많은 기자들이 많은지, 그런 글을 읽고 거울을 보면 새삼 내가 작아보였다.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신문과방송>이 마음에 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따옴표를 애용하는 글이 많다는 점이다. 트로트 곡의 꺾기처럼, 사고를 압축해 주는 키워드를 따옴표 안에 녹여내는 것은 문장의 굴곡을 만들어낸다. 종종 '따옴표 중독증'에 걸려 있는 나에게 따옴표 없는 문장은 적용하기가 힘들다.

<신문과방송>에는 내가 언론계 내부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질책하는 금시초문인 '뉴스'도 있다. 이를테면 지난 호(제399호) 기사에서 JP라는 맹주의 몰락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충청 지역에서 언론인 출신 공천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은 내게 '뉴스'였다(아쉬운 점은 출마 언론인 리스트에 현역시절 필명을 날리던, 사자후를 토하던 이름 있는 선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역시 정치는 2류 언론인들의 예정된 퇴로인가?).

언론인으로서 이제 막 1막 1장을 마친 나에게 <신문과방송>은 전후좌우를 살피게 하는 '나침반'이고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예방주사'이다. 아무쪼록 <신문과방송>이 앞으로도 언론계를 향한 따끔한 고언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신문과방송>이 고민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 나도 '애정'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신문과방송>의 무운과 건안을 기원한다. ●

내게 수없이 과제를 던져다오

이영윤 · 제민일보 사회부 기자

기 자생활에 입문한지 5개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해 11월 1일 '제민일보'에 입사한 나는 당시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청년실업이라는 파고를 운 좋게 발만 담근 채 빠져 나온 나는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편집국 문을 들어섰다. 편집국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때 내가 느꼈던 압박감은 무엇일까. 신문 수요자에서 생산자로 탈바꿈되는 게 이렇게 간단하구나. 문 사이를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 나는 편집국 선배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웬지 머릿속이 낡아빠지는 걸 느꼈다.

6년 전, 98년 11월 <신문과방송>을 처음 만났다. 제일 처음 읽은 기사가 지금도 생각난다. 지금은 제호가 바뀐 신문이지만, 당시 그 신문 주필로서 신문사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포부가 담긴 인터뷰 기사. 당시 인터뷰 당사자는 최근 4·3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에 큰 몫을 차지한, 제주도와 인연이 깊은 분이다.

"더 이상 부정한 권력을 비호하는 무지한 나팔수로 보여지지도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 대학에서의 첫 1년을 보내던 나는 인터뷰 기사 속 이 문장을 읽으며 가슴 속에서 느낀 초조와 떨림을 진정시켜야 했다. 언론인이 나갈 길을 응축한 이 문장을 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였던

가를 뼈저리게 통감할 수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내 앞에 놓인 한계를 넘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생긴 점이였다.

6년 후, 편집국에서 선배들과 악수를 하고, 뺏뺏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던 나는 새삼스레 6년 전 읽었던 문장이 내 귓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부터 '무지한 나팔수'가 되지 않기 위한 나의 노력이 시작됐다. 나에게 대한 반성이 줄줄이 이어졌다. <신문과방송>의 내용 하나 하나가 내가 겪고 헤쳐 나가야 할 현실이 된 것이다. 대학시절, <신문과방송>과 신문을 읽으며, 학과 공부를 통해서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언론에 대해 고민했던 흔적들은 과연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그 흔적들은 지금 내가 현실을 이겨나갈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지고 가야할 짐으로서 느껴지는 걸까.

6년 전 나는 이런 내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어쩌면 이같은 내 고민은 지나가는 푸념일지 모른다. 1년이 지나면 내가 느꼈던 이런 고민들을 아마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민을 6년 전에도 했다는 것이다. 내가 모르고 지나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그 현실을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심했던 시절. 고심에 비해 당당하게 살아갈 의지가 부족했던 나. 그런 내게 실망을 느꼈던 나.

앞으로도 고민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고민은 '무지한 나팔수'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의 연장일 것이다. 오늘도 <신문과방송>은 여전히 내 가방 속에 있고, 난 <신문과방송>을 읽으며 다짐을 공고히 한다. <신문과방송>에 실린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따져보게 된다. 정달영 대선배의 '기사론 기자론'을 읽으면서 다시금 언론인의 길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말글 다듬기'를 읽으며, 이 글을 쓰기가 조심스러울 뿐이다.

어쩌면 이같은 고민을 평생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여전히 난 '무지한 나팔수'가 되기 쉬운 여린 '초보'기자일 뿐이다. 치열한 고민만이 내 기자생활의 당위성을 지켜낼 방패이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고민 없이 무료하게 기자생활 하는 것은 더 못 견딜 일이다. 시간이 갈수록 '나팔수'가 '나팔'만 들고 으스대는 무력한 내 모습을 만나고 싶지 않다. <신문과방송>이여, 내게 수없이 과제를 던져다오. 내 앞에 장벽을 더 쳐주오.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오. ●

에세이를 기다립니다

월간 <신문과방송>은 매달 현직 언론인의 에세이를 실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겪은 일들에 관해 자유주제로 글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소 다른 언론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많은 투고 바랍니다.

소정의 교료도 지급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 주십시오.

* 문약: <신문과방송> 출판팀

* 전화: (02)2001-7863~5

* 팩스: (02)2001-7870

* 메일: press@kpf.or.kr